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와 초기 청소년기 사이버 폭력간의 관계 : 관계적 공격성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백문숙 · 장석진**
상명대학교

본 연구는 초기 청소년을 대상으로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와 관계적 공격성, 사이버 폭력 피해경험 및 가해경험 간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서울 소재의 초등학교 5, 6학년 및 중학교 1, 2학년을 대상으로 633명의 자료를 수집하여 최종적으로 601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는 사이버 폭력 피해 경험 및 가해경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동시에, 관계적 공격성을 매개로 하여 사이버 폭력 피해 경험 및 가해경험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를 경험한 초기 청소년은 또래에게 높은 관계적 공격성을 보이며, 이는 사이버 폭력 피해 및 가해경험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높인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통하여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가 초기 청소년기의 사이버 폭력 피해·가해경험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중요한 요인임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들에 대한 상담적 개입을 위해 관계적 공격성에 주목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상담 및 후속연구에 대한 시사점을 논의하였다.

* 주제어: 심리적 통제, 사이버 폭력, 관계적 공격성

논문투고일(2017. 01. 20), 논문심사일(2017. 02. 01), 게재확정일(2017. 03. 01)

* 본 원고는 백문숙(2015)의 석사학위 논문을 일부 수정, 보완한 것임.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장석진 / 상명대학교 교육학과 / 서울시 종로구 홍지문 2길 20 Tel: 02-2287-5497 / E-mail: schang@smu.ac.kr

I. 서론

오늘날 정보화기기의 발전으로 많은 청소년들의 인터넷 활용이 증가하고,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 사용이 급속도로 증가함에 따라 청소년들에게 사이버 공간은 가상 세계가 아닌 언제 어디서든 시공간의 제약 없이 타인과 은밀하게 상호작용하며 사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대표적인 공간으로 바뀌었다. 이러한 인터넷 테크놀로지의 발달로 통신수단과 새로운 형태의 소통 방법이 가능해지면서 청소년들의 일상생활 공유, 정보접근의 용이성, 교류 및 집단에 참여하는 수단 등 사회적 참여에 있어 긍정적인 기회를 제공하는 계기가 되었다. 하지만 지나친 가상공간의 집중, 인터넷의 높은 의존도와 현실상에서의 사회적 관계 차단, 대인관계 축소, 사이버 상에서 타인 비방과 명예훼손 및 신분도용 등 부정적인 문제 역시 나타나고 있다(김경은, 최은희, 2012; Engelberg & Sjoberg, 2004).

집단 괴롭힘의 형태는 이전의 학교 내의 직접적인 신체폭력에서 사이버 상에서의 간접적이고 무차별적인 언어폭력으로 확장되었으며, 이러한 결과 사이버 폭력(cyberbullying)이라는 부작용을 낳게 되었다. 사이버 폭력은 학교 안에서 십대 청소년들이 따돌림과 언어적 공격행동으로 집단적인 괴롭힘을 행하는 것과는 다른 형태의 집단 괴롭힘으로 인터넷 공간에서 일어나는 괴롭힘이다. 학교폭력 피해자가 사이버 상의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크고, 학교폭력 가해자 또한 사이버 상에서 가해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되므로, 사이버 폭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학교폭력과의 관계성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김경은, 최은희, 2012; 김은경, 2012; 권문자, 2014; Patchin & Hinduja, 2007). 최근 그 심각성이 부각되고 있는 사이버 폭력 피해 청소년들은 정신적 고통을 이기지 못한 채 극심한 심리적 문제로 자살을 시도하거나, 일부 청소년들은 또 다른 가해자가 되기도 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권문자, 2014; 박영신, 2005).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4)에서 전국 중·고등학생 총 4,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사이버 폭력 실태조사 결과, 전체의 27.7%가 사이버 폭력 피해를 경험했으며, 가해경험도 19.4%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13.1%의 청소년이 사이버 폭력 피해 및 가해경험을 동시에 경험한 것으로 보고하였다. 국외 연구에서도 이와 유사한 결과로 대만 청소년 2,992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전체 응답자의

18.4%가 사이버 폭력 피해를 경험했고, 5.8%가 사이버 폭력 가해 경험이 있으며, 11.2%가 사이버 폭력 피해 및 가해를 동시에 경험했다고 보고하였다(Chang, Lee, Chiu, His, Huang, Pan, 2013).

지금까지의 사이버 폭력에 대한 연구는 이제 초기단계로, 사이버 폭력 실태와 원인에 대한 조사(이인태, 2012)와 사이버 폭력에 미치는 영향 및 요인이 되는 다양한 변인 연구들에 국한되어 있다(남상인·권남희, 2013; 문선아, 2016; 박은주, 2012; 이영주, 2016; 조경숙, 2015). 사이버 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크게 환경적 요인과 심리적 요인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사이버 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인들 중 가족 변인이 사이버 폭력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일관성 있게 보고되어 왔다. 부모환경은 초기 청소년기의 적응과 발달을 돕는 주요 환경이라 할 수 있지만, 부적절한 부모의 양육태도는 다양한 심리·정서적 문제행동을 일으키는 예측변인이 되기도 한다(김미원, 박영신, 2012; 전숙영, 2007; 정옥분, 김향은, 1999). 이러한 부모의 양육태도 중 심리적 적응과 관련 깊은 부모의 심리적 통제에 최근 연구자들이 주목하고 있다. 부모의 심리적 통제는 양육자가 심리적 수단을 이용하여 자녀의 사고와 감정을 조정하여 통제하려는 시도인데, 부모의 기대를 만족시키지 못했을 때 애정을 철회할 것이라는 심리적 위협을 경험한 자녀는 심리적 부적응과 문제행동이 높아지게 되며, 이로 인해 또래관계에서 어려움을 경험하기 쉽다(김미원, 박영신, 2012; 신희수, 2012; 안명희, 2010; 이하연, 박주희, 2014; 장선영, 2013; 전미숙, 손은정, 2013; 현지은, 2010). 이처럼 청소년의 적응과 발달을 이해하는데 있어 가족에 대한 이해가 강조되어야 하는 것에 비해, 국내 사이버 폭력 연구에서는 가족변인에 대한 연구가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루어져, 이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초기 청소년기의 개인 내적인 심리적 요인 또한 사이버 폭력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인으로 볼 수 있다. 개인 내적인 심리적 요인으로 우울, 공격성, 학업스트레스 등을 들 수 있으며, 이러한 심리적 요인은 청소년의 사이버 폭력 뿐 아니라 정서·심리적 부적응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청소년의 다양한 문제행동을 초래한다고 밝혀져 왔다(오테곤, 2013; 전은숙, 2013). 이 중에서 공격성은 청소년의 사이버 폭력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심리적 요인으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공격성은 개체나 타인에게 해를 입히거나 힘이나 언어적 괴롭힘을 내포한 모든 행위·정서·사고를 의미한다(이은아, 2010). 공격성

에는 상대를 해치려는 목적으로 겉으로 표현되는 신체적, 언어적 공격인 외현적 공격성과 타인 관계를 의도적으로 통제하거나 조절하여 다른 사람에게 해를 주는 관계적 공격성으로 구분된다(Crick & Grotpeter, 1995). 이러한 공격성은 삶의 전반에 걸쳐 발달하며, 청소년의 비행, 학업만족도의 어려움, 약물 중독 등 학교부적응 결과를 예언하게 되는데(Coie, Lenox, Terry, Hyman & Lochman, 1995; Parker & Asher, 1987; 이성복, 2011, 재인용), 유발된 학교부적응이 보다 강화되고 진화하게 되면 반사회적 행동으로 발전할 수 있다.

과거에는 공격적인 행동표현의 한 형태인 신체적 공격성 또는 외현적 공격성에 관심이 집중되어왔으나(Crick, 1995; Crick, Grotpeter, & Bigbee, 2002; 한영경, 2008, 재인용), 집단 괴롭힘이나 학교폭력에서 신체적 폭력은 줄고 또래 관계에서 은밀한 관계적 괴롭힘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최근에는 외현적 공격성 뿐 아니라 남에게 의도적이고 간접적으로 해를 주는 관계적 공격성에 주목한 연구들에 연구자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실제로 초기 청소년기에 비신체적이고, 간접적인 관계적 공격성이 가장 많이 관찰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Cairns, Cairns, Neckerman, Ferguson, & Gariepy, 1989; 한영경, 2008, 재인용). 따라서 청소년들이 경험하는 사이버 폭력에 개인 내적인 심리요인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측되는 관계적 공격성을 역할에 대해서 주목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타인을 교묘한 방법으로 소외시키거나 조절하려는 관계적 공격성은 심리적 통제와 구조적으로 흡사하며(Kuppens, Laurent, Heybaert & Onghena, 2013), 부모의 심리적 통제를 많이 경험한 자녀일수록 외현적 공격성보다 또래를 통제하거나 타인을 해치는 관계적 공격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김경아·권해수, 2015; 소리나, 2016; Nelson & Crick, 2002). 한편, 사이버 폭력 역시 전통적인 폭력보다 타인과의 관계에서 은밀한 방법으로 관계를 의도적으로 손상시키는 관계적 공격성의 성격과 유사한 것으로 보고된 것에 비추어 불 때(Hinduja & Patchin, 2009), 초기 청소년기의 전반적인 적응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와 최근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사이버 폭력 경험 및 청소년들의 내적인 심리요인에 해당되는 관계적 공격성 간의 경로를 검증해 볼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초기 청소년기의 가장 중요한 환경요인인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와 사회적 문제의 중심인 사이버 폭력과의 관계를 살펴보고, 또래관

계에 영향을 주는 관계적 공격성이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와 사이버 폭력과의 관계를 매개하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 초기 청소년기의 사이버 폭력과 관계적 공격성간의 관계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와 초기 청소년기의 사이버 폭력 간의 관계에서 관계적 공격성의 매개 효과는 어떠한가?

II. 이론적 배경

1. 사이버 폭력과 심리적 통제

사이버 폭력(Cyberbullying)의 개념은 연구자마다 조금씩 다르게 정의되고 있는데(김종길, 2013), 사전적 의미에서 설명하는 사이버 폭력은 인터넷 공간(Cyber)상에서 일어나는 괴롭힘(Bullying)정도로 해석될 수 있다(이인태, 2012). 또한 컴퓨터, 핸드폰, 전자기기를 사용해서 의도적이고 반복적인 해를 가하는 것이라고 정의되고 있다(Hinduja & Patchin, 2012). 선행연구자들에 의한 정의를 살펴보면, Belsey(2006)는 사이버 폭력에는 고의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의도로 개인이나 그룹에 의한 적대적인 행동에 이메일, 핸드폰, 문자메시지, 웹사이트 등을 도구로 사용하는 모든 것을 포함한다고 정의하였다. Hinduja와 Patchin(2012)은 온라인 공간에서 다른 사람을 지속적으로 우스꽝스럽게 하거나, 이메일 또는 메신저로 타인에게 해를 가하고, 타인이 원하지 않는 것을 온라인에 유포하며, 전자화된 글자를 이용 수단으로 하여 고의적이고 지속적으로 누군가에게 해를 가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 선행연구자들의 정의를 종합해보면, 인터넷 공간상의 괴롭힘 현상에 대하여 수단에 의한 개념정의 뿐만 아니라 행위자체에 대한 개념으로 확대하여 사이버 폭력을 정의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사이버 폭력은 인터넷 테크놀로지가 사이버 상에서 가해자에게 피해자를 괴롭힐 수 있는 새로운 수단이 됨으로써, 직접적인 폭력의 공간이 확대된 것으

로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이버 폭력은 직접적인 폭력과 몇 가지 다른 점이 있다. 즉, 전통적인 폭력은 학교에서 하교하면 폭력에서 분리될 수 있는 이점이 있었으나, 사이버 폭력은 가정 및 개인 공간까지 침해를 할 수 있으며, 전과를 통해 빠르게 보급되는 메시지에 대한 규제의 어려움과 가해자와 피해자를 확인하는데 있어서의 어려움이 있다는 특성이 있다.

한편, 사이버 폭력에 대한 선행연구에 따르면, 부모의 양육태도(권문자, 2013), 생활양식(조제성, 2014), 부모의 심리적 통제(소리나, 2016) 등 가족변인이 청소년의 사이버 폭력과 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연구되었다. 외국의 선행연구(Brighi, Guarini, Melotti, Galli, Genta, 2012)에서도 가족 변인 중 가족 안에서 외로움을 사이버 폭력 피해학생의 예측 변인 중 하나로 보고하였으며, Hemphill, Kotevski, Tollit, Smith, Herrenkohl, Toumbourou와 Catalano(2012)도 부모의 지지가 사이버 폭력과 부정적인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밝히고 있다. 부모의 양육과 관련이 깊은 가족변인 중 하나로 최근 연구자들의 주목을 받고 있는 심리적 통제는 부모자녀 관계를 양육자가 조종하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부모가 자녀의 사고와 감정, 자율성과 독립적인 표현을 존중하지 않고 애정철회와 같은 행동을 보이는 태도를 지칭한다(Barber, 2002). 선행연구에 의하면, 심리적 통제가 높을 때 자녀들의 내재화 및 외현화 행동문제가 높게 나타났다으며, 부모로부터 경험된 분노에 대한 표현으로 또래관계에서도 어려움을 보이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따라서, 이상과 같은 선행연구들을 종합하여 볼 때,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와 사이버 폭력과는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2. 관계적 공격성과 사이버 폭력

관계적 공격성은 사회적 관계를 이용해 타인을 소외시키거나, 관계를 훼손, 협박하는 방식의 간접적인 공격성이다. Crick & Grotpeter(1995)는 공격성에서 성에 대한 차이를 가정하고 공격을 일으키는 타인에게 직접 신체적·언어적 공격을 가하는 외현적 공격성과 무리의 힘이나 압력을 사용하여 한 개인의 감정이나 관계를 훼손·협박함으로써 타인에게 피해를 가하는 간접적인 형태의 관계적 공격성으로 구분하였다. 관계적 공격성은 또래들 간의 관계를 조절하

고 힘이나 압력을 교묘하게 이용하여 또래 무리에서 따돌리거나 소외시키며 소문 퍼트리기와 같은 간접적인 행위를 통해 사회적 지위를 손상시키거나 위협하는 공격 형태이다(Crick & Grotpeter, 1995).

초기 선행연구는 공격적인 행동표현의 한 형태인 신체적 공격성 또는 외현적 공격성에 관심이 집중되었지만, 최근에는 외현적 공격성 뿐 아니라 남에게 의도적이고 간접적으로 해를 주는 관계적 공격성에 주목한 연구들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공격성과 연령에 관한 연구(박민정, 최보가, 2004; 서미정, 2012; 심은신, 이동훈, 2011; 최지영, 허유성, 2008; 현지은, 2010)를 살펴보면, 아동기에서 초기 청소년으로 연령이 증가하면서 표현능력 및 사회적 인지능력의 발달로 직접적인 신체적 공격행동인 외현적 공격성은 감소하는 현상이 있지만 간접적이고 은밀하게 보여 지지 않는 관계적 공격성은 증가하는 현상을 보인다고 보고되었다.

한편, 집단 괴롭힘이나 학교폭력에서도 신체적 폭력 못지않게 또래관계에서의 은밀한 관계적 괴롭힘이 빈번하게 나타나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그 중 사이버 상에서 청소년들은 신체적인 협박 뿐 아니라 은밀한 공격 행동을 두드러지게 보이는 것으로 보고되었다(Hinduja & Patchin, 2007). 실제로 사이버 폭력은 전통적 폭력보다 관계적 공격성의 특성이 강한 것으로 밝혀졌는데(Hinduja & Patchin, 2009), 타인에 대한 루머를 퍼뜨리고, 무리에서 배척하거나 소외시키는 방법으로 타인의 사회적 관계를 손상시키는 관계적 공격성과 사이버 상에서 고의적으로 타인에게 피해를 줄 의도로 이메일 또는 메신저로 타인에게 해를 가하거나, 타인이 원하지 않는 것을 유포하며, 지속적으로 해를 가하는 사이버 폭력과는 유사점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3. 심리적 통제와 관계적 공격성

가정은 최초의 사회적 환경이며, 인간은 이를 통해 가장 기초적인 사회적 관계를 만들어 간다. 특히 부모자녀관계는 인간의 모든 발달에 있어 지대한 영향을 주는 필수 요인으로, 이러한 부모의 양육태도는 자녀의 전반적인 정서·심리적 태도에 밀접하게 관계되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초기 청소년기의 가장 중요한 부모의 양육태도는 위기를 경험하는 청소년의

긍정적인 보호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하지만, 반면 부정적인 양육태도는 문제행동을 일으키는 위험요인이 되기도 한다(전숙영, 2007; 정옥분, 김향은, 1999). 이런 부정적인 양육태도의 하나로 Barber(1996)는 통제적 양육태도를 개념적으로 구분하였으며, 통제를 행동적 통제와 심리적 통제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부모의 행동통제는 자녀의 생활에 있어 기능 및 스타일을 매니저하고 단속하려는 행동적 제스처를 의미하며, 심리적 통제는 자녀의 사고와 감정을 존중하지 않고 자율성과 독립적인 표현을 묵살하고 죄의식 유발 및 애정철회와 같은 행동을 보임으로 부모자녀 관계를 양육자가 조종하려는 것을 의미한다(Barber, 2002). Barber(1996)는 심리적 통제의 개념을 사고과정, 자기표출, 감정, 부모에 의한 애정과 같은 자녀의 심리, 정서적 영역을 통제하고 침해하려는 시도라고 규정하였다.

Aunola & Nurmi(2005)도 어머니의 통제 수준에 따라 문제행동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고 보고하면서,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온정적이고 애정적인 동시에 죄책감이나 실망감 등을 들게 하는 심리적 통제가 높을 때 자녀들의 내재화 및 외현화 행동문제가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어머니의 의사소통 태도나 실망감과 죄의식을 주는 심리적 통제가 자녀의 심리를 조절 통제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였다. 선행연구 결과에 따르면, 자녀가 심리적 통제를 많이 받았을 때 사회불안, 우울, 분노, 공격성 및 관계적 공격성, 수치심과 죄책감, 정서조절능력 등의 문제행동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신희수, 안명희, 2013; 안명희, 2010; 이서란, 2014; 이종희, 2012; 장선영, 2013; 전미숙, 손은정, 2013; 현지은, 2010). 즉, 부모의 과잉 간섭과 조절, 애정철회, 비일관적인 양육은 청소년 자녀에게 사회적 불안, 우울, 분노, 공격행동, 수치심과 죄책감, 자기에 대한 부적절감과 같은 다양한 심리적 부적응 문제를 높이는 것으로 보인다. Nelson과 Crick(2002)에 따르면, 자녀가 부모의 기대를 만족시키지 못했을 때 애정을 철회할 것이라는 심리적 위협을 경험했던 자녀는, 부모로부터 경험한 분노표현을 바탕으로 친구와의 관계에서 친구를 무리에서 따돌리거나 우정을 철회하는 등 자신의 부모와 매우 흡사한 행동특성을 보인다(이하연, 박주희, 2014). 최근 연구에서도 부모의 심리적통제와 관계적 공격성은 타인을 정서적, 사회적으로 조종하고자 한다는 측면에서 그 구조가 유사하며 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Kuppens, Laurent, Heybaert & Onghena, 2013).

초기 청소년기는 아동기에서 청소년기로 바뀌는 시기로 부모로부터 심리적

으로 독립과 개별화를 확립하고 자율성의 욕구가 확대되는 때이다(윤언정, 김경연, 2010). 이런 시기에 부모로부터 과잉기대나 심리적 통제를 받은 청소년은 좌절을 경험하게 되고, 외부에 대한 공격적인 부적응 행위로 분노와 좌절을 드러낼 수 있다(김민정, 도현심, 2001; 전주람, 2012). 특히, 초기 청소년에게 양육적 돌봄의 주체로 어머니의 역할이 절대적이며,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가 자녀의 공격성에 보다 큰 영향을 주고 있다는 선행연구 결과를 통해 볼 때(김미원, 박영신, 2012; 신희수, 안명희, 2013; 조서경, 2014), 초기 청소년기에 대한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에 초점을 두고 청소년들의 심리사회적 부적응 행동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력을 확인하는 것은 의미가 있을 것이다.

Ⅲ. 방법

1. 연구 대상 및 연구 절차

본 연구는 서울 소재의 초등학교 5, 6학년 및 중학교 1, 2학년의 초기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대상 학생 모두 담임교사의 도움으로 아침 조회 시간에 설문지의 의도와 작성요령, 주의사항을 알리고 설문을 실시한 후 회수하였다. 회수된 설문지 633부 중 무응답 및 불성실하게 답변한 자료를 제외한 총 601부의 설문지를 분석자료로 사용하였다.

설문지의 조사 결과, 남학생은 320명(53.2%), 여학생은 281명(46.8%)으로 총 601명의 학생이 최종 분석 대상에 포함되었고, 그 중 초등학교 5학년은 201명(33.4%), 6학년은 135명(22.5%), 중학교 1학년은 130명(22.6%), 중 2학년은 135명(22.5%)으로, 성별, 학년별로 비교적 고른 분포를 보였다.

2. 측정도구

1)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 척도

청소년이 지각한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 정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Barber(1996)가 개발한 심리적 통제 척도(Psychological Control Scale-Youth Self-Report:PCS-YSR)를 전숙영(2007)이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청

소년이 지각한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에 대해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며, 총 16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본 척도는 언어적 표현 제재 및 감정을 무시하는 표현 제재, 변덕스러운 감정 기복과 자녀에 대한 인신공격, 그리고 자녀의 잘못을 구실삼아 죄의식을 심어주어 애정을 철회하는 애정철회 등 3개의 하위 요인으로 이루어졌다. 각 문항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 매우 그렇다(4 점) ‘까지 Likert형 4점 척도 상에 응답하도록 되어 있으며, 총점이 높을수록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전숙영(2007)의 연구에서 내적 신뢰도는 .65였으며, 본 연구에서의 내적 신뢰도는 .89로 나타났다.

2) 사이버 폭력 피해 경험 척도

사이버 폭력 피해 경험 척도는 Hinduja와 Patchin(2012)이 청소년의 사이버 폭력 피해경험을 측정하기 위하여 개발한 측정 도구를 김은경(2012)이 수정 보완한 것을 초기 청소년에 맞게 문구를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 11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설문 문항은 최근 한 달 동안 사이버 상에서 피해 경험을 묻는 것으로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 매우 그렇다(5점) ‘까지 Likert형 5점 척도 상에 응답하도록 되어 있다. 총점이 높을수록 사이버 폭력의 피해 경험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김은경(2012)의 연구에서 신뢰도는 .90이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내적 신뢰도는 .89로 나타났다.

3) 사이버 폭력 가해 경험 척도

사이버 폭력 가해 경험 척도는 Hinduja와 Patchin(2012)이 청소년의 사이버 폭력 가해경험을 측정하기 위하여 개발한 측정 도구를 김은경(2012)이 수정 보완한 것을 본 연구에서는 초기 청소년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최근 한 달 동안 사이버 상에서 타인을 해하거나 폭력을 가한 정도를 측정하는 것으로 총1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설문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 매우 그렇다(5점) ‘까지 Likert형 5점 척도 상에 응답하도록 되어 있다. 총점이 높을수록 사이버 폭력의 가해 경험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김은경(2012)의 연구에서 신뢰도는 .93이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내적 신뢰도는 .89으로 나타났다.

4) 관계적 공격성 척도

관계적 공격성을 측정하기 위해 한영경(2008)이 번안한 Marsee, Kimonis & Frick(2004)의 자기보고형 또래갈등 척도(Peer Conflict Scale, PCS)를 사용하였다. 또래갈등 척도(PCS)는 외현적 공격성과 관계적 공격성을 측정하는 두 개 차원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관계적 공격성을 측정하는 20 문항을 사용하였다. 총점이 높을수록 또래관계에서 관계적 공격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Marsee & Frick(2007)의 연구에서 관계적 공격성의 신뢰도는 .87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관계적 공격성의 신뢰도는 .93로 나타났다.

3. 분석방법

본 연구는 SPSS 18.0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은 분석을 실시하였다.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 사이버 폭력, 관계적 공격성 관련변인에 대한 전반적인 경향성을 보기 위해 기술통계를 실시하였으며, 변수들의 왜도와 첨도를 확인하여 정상 분포가 가정되었는지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 사이버 폭력, 관계적 공격성의 관련 변인들 간의 관련성을 보기 위하여 Pearson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가 사이버 폭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관계적 공격성의 매개효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Baron과 Kenny(1986)가 제안한 3단계의 매개효과 검증을 실시하고, Sobel test를 실시하여 모든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IV. 결과

1. 기술통계치 및 상관분석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 관계적 공격성과 사이버 폭력 사이에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표 1와 같다.

주요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와 관계적 공격성의 관계에서는 유의한 정적 상관($r=.345, p<.01$)을 나타내어 청소년이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를 높게 지각할수록 또래관계에 영향을 주는 관계적 공격성이 많이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와 사이버

폭력 피해경험($r=.310, p<.01$), 사이버 폭력 가해경험($r=.285, p<.01$)과의 관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가 높을수록 청소년의 사이버 폭력 피해경험과 가해경험이 많이 경험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음으로 관계적 공격성과 사이버 폭력 피해경험을 살펴보면, 관계적 공격성은 사이버 폭력 피해경험과 유의한 정적상관($r=.372, p<.01$)을 나타냈으며, 이것은 관계적 공격성을 많이 보이는 청소년이 사이버 폭력 피해경험을 많이 경험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관계적 공격성과 사이버 폭력 가해경험에서도 유의미하게 정적상관($r=.526, p<.01$)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사이버 폭력 피해경험과 사이버 폭력 가해경험 간에 유의한 정적 상관($r=.620, p<.01$)을 나타내어, 청소년이 사이버 폭력 피해 경험이 많으면 사이버 폭력 가해경험 또한 많이 경험되는 것으로 보인다.

〈표 1〉 주요 변인간의 상관관계 및 기술통계 (N=601)

구분	1	2	3	4
1. 어머니의 심리적통제	1			
2. 관계적 공격성	.345**	1		
3. 사이버 폭력 피해	.310**	.372**	1	
4. 사이버 폭력 가해	.285**	.526**	.620**	1
평균	29.18	25.84	14.41	15.99
표준편차	9.05	7.55	5.97	5.61

** $p < .01$, *** $p < .001$

2.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와 사이버 폭력 피해경험 간의 관계에서 관계적 공격성의 매개효과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와 피해 경험 간의 관계에서 관계적 공격성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1단계에서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를 독립변인으로, 초기 청소년의 관계적 공격성으로 종속변인으로 투입 하고, 2단계에서 청소년이 지

각한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를 독립변인으로, 사이버 폭력의 피해경험을 종속변인으로 투입하였다. 마지막 단계에서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와 관계적 공격성을 독립변인으로, 사이버 폭력의 피해 경험을 종속변인으로 투입하여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그 결과를 표 2에 제시하였다. 1단계에서 심리적 통제는 관계적 공격성에 유의한 영향 ($\beta=.345, p<.001$)을 미치며, 관계적 공격성 총 변화량의 11.8%가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에 의해 설명되고 있다. 2단계에서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는 사이버 폭력의 피해 경험에 유의한 영향 ($\beta=.310, p<.001$)을 미치며, 사이버 폭력 피해 경험 총 변화량의 9.5%가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에 의해 설명되고 있다. 마지막 단계에서, 심리적 통제는 사이버 폭력의 피해 경험에 유의한 영향($\beta=.207, p<.001$)을 미치며, 2 단계보다 그 값이 감소($\Delta\beta=.103$)하였다. 관계적 공격성 또한 사이버 폭력의 피해 경험에 유의한 영향($\beta=.301, p<.001$)을 미쳤으며, 사이버 폭력 피해 경험 총 변화량의 17.3%가 심리적 통제와 관계적 공격성에 의해 설명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매개변수인 관계적 공격성이 부분매개효과를 가지면서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와 사이버 폭력 피해의 관계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2>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와 사이버 폭력 피해경험 간의 관계에서 관계적 공격성의 매개효과

단계	독립변수	종속변수	β	t	R ²	F
1	모의 심리적통제 → 관계적 공격성		.345	9.01***	.118	81.12***
2	모의 심리적통제 → 사이버 폭력 피해경험		.310	7.99***	.095	63.87***
3	모의 심리적통제 → 사이버 폭력 피해경험		.207	5.22***	.173	63.82***
	관계적 공격성 → 사이버 폭력 피해경험		.301	7.60***		

*** $p<.001$

위에서 확인한 매개효과가 실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를 다시 한 번 검증하기 위해 Sobel Test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방법은 MacKinnon과 Dwyer(1993)가 매개효과의 통계적 유의미성을 검증하기 위해 제안한 방식으로 결과는 아래와 같다. Sobel Test 결과, $Z=5.84$ 이며 Z 값이 -1.96 이하, $+1.96$ 이상의 범위에 존재하므로 매개효과는 유의하다고 할 수 있다.

3.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와 사이버 폭력 가해경험 간의 관계에서 관계적 공격성의 매개효과

관계적 공격성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1단계에서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를 독립변인으로, 초기 청소년의 관계적 공격성으로 종속변인으로 투입하였고, 2단계에서 청소년이 지각한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를 독립변인으로, 사이버 폭력의 가해경험을 종속변인으로 투입하였다. 마지막 단계에서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와 관계적 공격성을 독립변인으로, 사이버 폭력의 가해 경험을 종속변인으로 투입하여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그 결과를 표 3에 제시하였다. 1단계에서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는 관계적 공격성에 유의한 영향 ($\beta=.345, p < .001$)을 미치며, 관계적 공격성 총 변화량의 11.8%가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에 의해 설명되고 있다. 그리고, 2단계에서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는 사이버 폭력의 가해경험에 유의한 영향 ($\beta=.285, p < .001$)을 미치며, 사이버 폭력 가해경험 총 변화량의 8.0%가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에 의해 설명되고 있다. 마지막 단계에서, 심리적 통제는 사이버 폭력의 가해경험에 유의한 영향 ($\beta=.118, p < .001$)을 미치며, 2 단계보다 그 값이 감소 ($\Delta\beta=.167$)하였다. 관계적 공격성은 사이버 폭력의 가해경험에 유의한 영향 ($\beta=.486, p < .001$)을 미쳤으며, 사이버 폭력 가해경험 총 변화량의 28.7%가 심리적 통제와 관계적 공격성에 의해 설명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매개변수인 관계적 공격성이 부분매개효과를 가지면서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와 사이버 폭력 가해의 관계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3〉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와 사이버 폭력 가해경험 간의 관계에서 관계적 공격성의 매개효과

단계	독립변수	종속변수	β	t	R ²	F
1	모의 심리적통제	→ 관계적 공격성	.345	9.01***	.118	81.12***
2	모의 심리적통제	→ 사이버 폭력 가해경험	.285	7.29***	.080	53.14***
3	모의 심리적통제	→ 사이버 폭력 가해경험	.118	3.21***	.287	121.62***
	관계적공격성	→ 사이버 폭력 가해경험	.486	13.22***		

*** $p < .001$

위에서 확인한 매개효과가 실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를 다시 한 번 검증하기 위해 Sobel Test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방법은 MacKinnon과 Dwyer(1993)가 매개효과(mediating effect)의 통계적 유의미성을 검증하기 위해 제안한 방식으로 결과는 다음과 같다. Sobel test 결과, $Z=7.47$ 이며 Z 값이 -1.96 이하, $+1.96$ 이상의 범위에 존재하므로 매개효과는 유의하다고 할 수 있다.

V. 논의

본 연구는 초기 청소년을 대상으로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와 관계적 공격성 및 사이버 폭력간의 관계를 탐색하였고,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와 사이버 폭력의 관계를 관계적 공격성이 매개하는지 분석하였다.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논의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 관계적 공격성, 사이버 폭력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는 사이버 폭력 피해경험 및 가해경험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관계적 공격성도 정적 상관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와 관계적 공격성 사이에 정적인 상관이 있다는 연구결과(김경아, 권혜수, 2015; 김미원, 박영신, 2012; Nelson & Crick, 2002)를 지지하는 결과로, 부모의 심리적 통제를 많이 경험한 청소년일수록 관계적 공격성이 높다는 것을 나타낸다. 또한,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 및 과잉간섭은 사이버 폭력 경험과 정적 상관을 가질 뿐만 아니라, 부모의 지지가 낮고 부모의 친밀감이 부족하다고 느낄수록 사이버 폭력 피해 수준이 높고 사이버 폭력 가해 행동을 많이 경험한다는 연구결과(김은경, 2012; 권문자, 2014; Hemphill et al., 2012)와도 일치한다. 이와 같은 결과는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 수준에 따라 청소년의 사이버 폭력 경험 정도가 높아지거나 낮아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청소년들이 부정적인 양육을 경험할수록 사이버 폭력이 증가한다는 연구결과를 지지한다(권문자, 2013; 신소라, 2016; Hemphill et al., 2012). 이는 다시 말해 어머니로부터 애정철회를 많이 경험하고 감정적 지지와 인정을 받지 못한다고 청소년이 지각할수록, 사이버 폭력과 같은 문제행동을 더 많이 보일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결과이다. 관계적 공격성 역시, 초기 청소년의 사이버 폭력 경험과 높은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밝혀져(김경은, 최

은희, 2012; 이아름, 2014; 전은숙, 2013), 초기 청소년의 관계적 공격성과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가 상호 영향을 주고받으며 문제행동인 사이버 폭력에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변인이 됨을 알 수 있다.

둘째,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와 초기 청소년의 사이버 폭력 피해경험 간의 관계에서 관계적 공격성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가 사이버 폭력 피해경험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유의미 하였고,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가 청소년의 사이버 폭력 피해경험에 부분매개 한다는 사실이 검증되었다. 즉, 청소년이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로 인해 감정을 무시당하고 애정이 철회되어 죄책감을 느끼게 될수록 직접적인 사이버 폭력 피해경험 수준은 높아질 뿐만 아니라,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는 초기 청소년들의 관계적 공격성을 높여, 이는 초기 청소년의 사이버 폭력 피해경험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오게 됨을 알 수 있다. 이는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높은 심리적 통제가 불링 피해 경험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으며(Ma & Bellmore, 2012), 공격성이 사이버 폭력 피해경험에 유의미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연구결과(이아름, 2014; 전은숙, 2013)를 지지한다. 즉, 관계적 공격성이 높은 청소년은 일반적으로 또래관계에서 갈등과 배신을 더 많이 경험하며, 그 결과 스스로를 외롭고, 우울하고, 또래로부터 고립되었다고 지각하게 된다(Crick & Grotpeterr, 1995). 친구들로부터 거부당하고 고립되는 피해 청소년들은 새로운 관계 구도에서도 지속적으로 고립된 교우관계를 경험하기 쉬운데, 이러한 결과로 인한 분노의 감정을 지속적으로 표출하려는 행동경향성 때문에 피해 청소년은 또 다른 거부를 유발하여, 결국 피해경험이 더욱 심화되는 악순환을 경험하게 한다는 설명이 가능하다(김정은, 최은희, 2012; 김미원, 박영신, 2012; 김현정, 2013).

또한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와 사이버 폭력 가해경험 간의 관계에서 관계적 공격성의 부분 매개효과가 검증되었다. 즉,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는 사이버 폭력 가해경험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침과 동시에 관계적 공격성을 통해서 간접적으로도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검증되었다. 이를 통하여, 초기 청소년이 지각한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가 높을수록 사이버 폭력 가해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으며, 초기 청소년의 또래관계에서 관계적 공격성이 증가하면 사이버 폭력 가해 경험 가능성 또한 높이는 결과를 가져오게 됨을 알 수 있다. 이는 부모자녀 관계에서 과잉기대를 경험하고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높은 것이 사춘기 때 보이는 높은 공격성과 연관이 있다는 연구결과(김민정, 도현심, 2001; 박

정은, 2002; Murray, Dwyer, Rubin, Wisor & LaForce, 2014)를 지지한다. 또한,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심리통제와 우정특성의 관계에서 아동의 관계적 공격성이 부분 매개효과를 보인다는 결과(김미원, 박영신, 2012), 공격성이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과 사이버 폭력 가해 경험 간의 관계에서 부분매개 한다는 연구결과(김현정, 2013)를 부분적으로 지지하는 결과이다. 이는 심리적 수단을 이용하여 자녀의 사고와 감정을 조절하여 통제하려는 시도인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타인을 은밀한 방법으로 소외시키거나 조절하려는 관계적 공격성이 유사한 구조를 가진다는 선행연구자들의 주장을 뒷받침하며, 이러한 관계적 공격성이 사이버 폭력 가해경험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Hinduja & Patchin, 2009; Kuppens, Laurent, Heybaert & Onghena, 2013).

한편,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는 관계적 공격성을 매개로 사이버 폭력 피해경험 뿐만 아니라 가해 경험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선행연구에서 사이버 폭력 피해자가 사이버 폭력 가해자가 되거나, 사이버 폭력 가해자가 다시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사이버 폭력 피해 및 가해 경험이 서로 높은 상관성이 있음을 확인한 것과 유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권문자, 2014; 이아름, 2014; 전은숙, 2013). 이러한 결과는 사이버 폭력 경험을 피해 또는 가해 경험으로 구분하여 단편적으로 확인하기보다 사이버 폭력 피해와 가해 경험을 동시에 살피는 것이 청소년들의 사이버 폭력을 이해하는 데 보다 유용함을 시사하고 있다. 즉, 사이버 폭력 피해 및 가해경험에 동일하게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과 그 변인들 간의 경로를 이해하는 것은 사이버 폭력을 경험한 피해 청소년뿐만 아니라 사이버 폭력 가해 청소년 모두에게 유용한 예방적인 차원으로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 정보화기기의 눈부신 발전으로 인터넷 활용이 증가함에 따라 청소년들의 사이버 폭력이 증가하고 있는 사회적 현실을 고려할 때, 양육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가 초기 청소년들의 관계적 공격성을 악화시켜 그 결과로 사이버 폭력 가해·피해 경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은, 학교와 가정, 그리고 청소년 상담현장에서 사이버 폭력 경험을 심층적으로 이해하는데 도움을 제공하는 동시에, 청소년 사이버 폭력에 대한 효과적인 예방적 접근에 기여할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 대

상은 서울 한 지역의 초등생 5, 6학년과 중학생 1, 2학년을 대상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수집된 자료가 전체를 일반화하기 어렵다. 또한, 초기 청소년의 특성을 이해하기 위하여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함께 연구하였으나,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별 사이버 폭력의 특징을 파악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다양한 지역과 대상을 중심으로 연구모형을 검증해 볼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의 영향력을 보고한 선행연구 결과들을 토대로 연구변수를 설정하였으나, 최근 아버지의 양육참여가 증가하고 있는 사회적인 현실을 반영하여 후속연구에서는 아버지의 심리적 통제까지 확대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셋째, 사이버 폭력을 이해하기 위해 선행연구자들(Hinduja & Patchin, 2007)의 제안에 따라 사이버 폭력과 학교폭력 간의 높은 관계성을 가정하고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는데, 청소년들의 사이버 폭력이 사회적인 문제로 주목받고 있는 현 시점에서 전형적인 학교폭력과 사이버 폭력의 차이점과 고유한 특성을 파악하여, 차별적인 대처 방안과 개입방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여러 가지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사이버 폭력 경험에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뿐만 아니라 관계적 공격성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그 경로와 기제를 확인한 것에 의의가 있다. 이러한 의의와 더불어 본 연구의 결과가 초기 청소년의 사이버 폭력 경험을 이해하고, 나아가 초기 청소년들의 관계적 공격성을 낮추고 사이버 폭력을 예방할 수 있는 개입 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 자료를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 김경아, 권해수(2015).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관계적 공격성의 관계 : 사회평가 불안과 분노억제의 매개 효과. **청소년상담연구**, 23(1), 139-156.
- 김경은, 윤혜미(2012). 청소년의 폭력피해경험, 폭력용인태도와 사이버 폭력 가해 행동의 관계성. **한국아동복지학**, 39, 213-244.
- 김경은, 최은희(2012). 청소년의 학교폭력 피해경험이 사이버폭력에 미치는 영향 : 공격성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청소년복지연구**, 14(3), 259-283.
- 김민정, 도현심(2001). 부모의 양육행동, 부부갈등 및 아동의 형제자매관계와 아동의 공격성간의 관계. **아동학회지**, 22(2), 149-166.
- 김미원, 박영신(2012).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심리통제와 우정특성의 관계: 관계공격성의 매개효과. **정서·행동장애연구**, 28(1), 171-190.
- 김은경(2012). **청소년의 사이버 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변인 연구**. 명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종길(2013). 청소년의 폭력피해경험과 학업스트레스가 사이버 폭력에 미치는 영향. **한국범죄심리연구**, 9(1), 47-68.
- 김현동, 송병호(2013). 사이버 폭력이 학교폭력 가해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범죄심리연구**, 9(3), 87-111.
- 김현정(2013).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과 사이버폭력과의 관계: 공격성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광운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권문자(2014). **청소년의 사이버불링과 우울 및 자살사고와의 관계:부모 양육태도와 또래애착의 조절효과**. 서울사이버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남상인, 권남희(2013). 청소년 사이버 폭력 가해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연구. **미래청소년학회지**, 10(3), 23-43.
- 문선아(2016). **청소년의 사이버불링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모바일 인스턴트 메시지를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민정, 최보가(2004). 청소년의 관계적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학적 변인들.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2(4), 95-104.
- 박성연(2002). 아버지의 양육행동과 남아의 공격성간의 관계 및 세대간전이. **아동학회지**, 23(5), 35-50.

- 박은주(2012). **청소년의 자기통제력이 사이버불링 경험에 미치는 영향**. 광운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영신(2005). **아동의 공격성 유형과 학교 적응의 관계**.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영신, 김의철, 김영희(2007). 한국 청소년의 일탈행동 형성과정에 대한 중단 분석: 심리적, 관계적, 그리고 사회적 접근. **한국심리학회지**, 13(1), 1-41.
- 박정은(2002). **부모의 양육태도, 공격성 및 또래동조성과 집단 따돌림 가해경향과의 관계**. 서강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서미정(2012). 아동의 외현적, 관계적 공격성의 변화유형 및 고위험 변화집단에 예측요인. **한국아동복지학**, 38, 157-186.
- 서화원, 조운오(2013). 사이버불링 피해가 청소년의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미래청소년학회지**, 10(4), 111-131.
- 신희경(2006). 가해 청소년, 피해청소년, 가해/피해 청소년 집단유형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한국청소년 연구**, 17(1), 297-323.
- 신희수(2012). **지각된 어머니의 심리통제와 대학생의 내면화 증상의 관계: 완벽주의, 인정욕구의 매개효과**. 서강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신희수, 안명희(2013).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가 대학생의 심리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 완벽주의와 인정욕구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25(3), 621-641.
- 심은신, 이동훈(2011). 여중생의 우정관계 질투와 관계적 공격성 간의 관계: 의도귀인과 또래동조성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24(2), 21-42.
- 소리나(2016). **지각된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중학생 자녀의 사이버 불링 가해행동의 관계에서 관계적 공격성의 매개효과: 성별 다집단 분석**.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안명희(2010). 모의 불안정 성인애착과 심리적 통제: 모의 정서와 자아유능감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15(4), 691-710.
- 안명희(2010). 어머니의 불안정 성인애착이 자녀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어머니의 정서와 심리통제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29(4), 867-885.
- 이서란(2014).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분노와 관계적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서강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성복(2011) **유아의 신체적 및 관계적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수경, 오인수(2012). 사이버 괴롭힘과 오프라인 괴롭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비교분석. **아시아교육연구**, 13(2), 137-161.
- 이영주(2016). **청소년의 사이버불링 가해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숭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인태(2012). 초등학생의 사이버 폭력 실태와 원인에 대한 조사연구: 경기도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을 중심으로. **한국청소년문화연구소**, 32, 91-118.
- 이종희(2012).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청소년의 또래관계에 미치는 영향: 관계적 공격성의 매개효과**. 대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아름(2014). **고학년 초등학생의 공격성, 언어폭력성, 사회성이 사이버 불링 경험에 미치는 영향**. 영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은아(2010). **초등학생용 공격성 척도 개발 및 타당화**. 경성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하연, 박주희(2014).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중학생의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이 관계적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청소년연구**, 25(3), 233-258.
- 오태곤(2013). 중학생의 사이버불링 피해 경험과 정서행동과의 관계. **한국컴퓨터정보 학회**, 18(12), 207-215.
- 오세연, 곽영길(2013). 사이버 폭력을 통한 학교폭력의 실태와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치안행정논집**, 10(3), 65-88.
- 오승희(2014). **사이버 폭력에 대한 정책적 대응: 미국과 한국의 사례 및 정책 비교분석**.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윤언정, 김경연(2010). 부·모의 심리적 통제 및 과잉기대가 청소년의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자기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48(8), 67-76.
- 장선영(2013).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와 아동의 사회불안의 관계: 아동의 완벽주의의 매개효과**.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전미숙, 손은정(2013).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가 청소년의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의 자기통제와 부적응적 정서조절의 조절효과. **청소년시설행경**, 11(2), 19-27.
- 전은숙(2013). **청소년의 사이버 폭력 경험이 우울과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명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전숙영(2007). 어머니의 심리통제와 아동의 행동문제-학령기 후기 아동의 정서

- 적 자율성의 매개효과에 대한 탐색. **대한가정학회지**, 45(6), 101-111.
- 전주람(2012). **남녀 아동의 자기통제력, 부모의 양육행동, 부모간 갈등이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정옥분, 김향은(1999). “자녀의 힘을 북돋우는 부모” 프로그램이 어머니와 자녀에게 미치는 효과 : 어머니의 역할만족, 의사소통 및 자녀의 자아 존중감, 사회적 능력을 중심으로. **한국아동학회**, 20(4), 179-193.
- 조경숙(2015). **청소년의 사이버 폭력에 미치는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스트레스 대처 방식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중앙신학대학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조서경(2014).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남자 중학생의 관계적 공격성 관계: 적대적 의도귀인의 매개효과와 공격성에 대한 또래 규범적 신념의 조절효과**. 충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제성(2014). **청소년 생활양식이 사이버 폭력 피해에 미치는 영향**. 동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수미, 김동일(2010). 따돌림 관여 유형에 따른 사회적 기술과 공격적 행동성향. **청소년상담연구**, 18(1), 59-72.
- 최지영, 허유성(2008). 괴롭힘 상황에서의 참여자 역할 및 관계적 공격행동 지각유형에 따른 도덕판단력과 사회적 상호의존성. **청소년학연구**, 15(6), 171-196.
- 한국정보화진흥원(2013). **학교폭력 2.0, 사이버불링 실태와 해법 세미나**. 한국정보화 진흥원, 1-63.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4). **청소년의 사이버불링 실태조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1-7.
- 한국교육개발원(2007). **가고 싶은 안전한 학교 만들기- 영국학교폭력대처 보고서 <사이버폭력>**, 한국교육개발원, 1-58.
- 한영경(2008). **중학생의 관계적 공격성에 영향을 주는 개인 내적 요인**. 아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황은혜(2014).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와 행동 통제가 청소년의 또래관계의 질에 미치는 영향: 자아탄력성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건국대학교 대학원 석사 학위논문.
- 현지은(2010). **남녀 중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심리적 통제, 사회불안, 관계적 공격성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Aunola, K. & Nurmi, J. E.(2005). The Role of Parenting Styles in Children's Problem Behavior. *Child Development, 76(6)*, 1144-1159.
- Barber, B. K.(1996). Parental psychological control: Revisiting a neglected construct. *Child Development, 67(6)*, 3296-3319.
- Barber, B. K., & Harmon, E. L.(2002). Violating the self. In B. K. Barber (Ed.), *Parental psychological control of children and adolescents* (pp.237-288). Washington: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Barber, B. K., Stolta, H. E., & Olsen, J. A.(2005). Parental support, Psychological control, and behavioral control: Assessing relevance across time, culture, and method. *Monograph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70(4)*, 1-137.
- Belsey, B(2006). Cyberbullying: An emerging therat to the “always on” generation. from <http://www.cyberbullying.ca>. 검색일자: 2014.11.15.
- Brighi, A., Guarini, A., Melotti, G., Galli, S., & Genta, M. L.(2012). Predictors of victimization across direct bullying, indirect bullying and cyberbullying. *Emotinal and Behavioural Difficulties, 17(3-4)*, 375-388. doi/10.1080/13632752.201 2.70484
- Bogin, B., & Smith, H. b.(2000). *Evolution and the human life cycle*. in S. Stinson, B. Bogin, r. Huss-Ashmore, D. O'Rourke (Eds). Human biology: An evolutionary and biocultural perspective. New York, NY: Wiley.
- Chang, F., Lee, C., Chiu, C., His, W., Huang, T., & Pan, Y.(2013). Relationships among cyberbullying, school bullying, and mental health in Taiwanese adolescents. *Journal of School Health, 83(6)*, 454-462.
- Crick, N. R., & Grotpeter, J. K.(1995). Relational aggression, gender, and social psychological adjustment. *Child Development, 66*, 710-722.
- Crick, N. R., & Grotpeter, J. K.(1996). Children's treatment by peer: Victims of relational and overt aggression.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8*, 367-380.
- Dhungana, K. J.(2012). *Transcending beyond the schoolyard: A multilevel examination of the environmental influences and prevalence of traditional and cyber bullying perpetration*. Doctoral dissertation. The

- Florida State University.
- Engelberg, E., & Sjoberg L.(2004). Internet Use, Social Skills, and Adjustment. *Cyberpsychology & Behavior*, **7(1)**, 41-47.
- Hinjuja, S., & Patchin, J. W.(2007). Off-line consequence of online victimization: School violence and delinquency. *Journal of school Violence*, **6(3)**, 89-112.
- Hinjuja, S., & Patchin, J. W.(2009). Ongoing and online: Children and youth's perceptions of cyberbullying. *Children and Youth Services Reviewe*, **31(12)**, 1222-1228.
- Hinjuja, S., & Patchin, J. W.(2012). *Bullying: Beyond the schoolyard Preventing and responding to cyberbullying*. 사이버폭력(조아미 외 공역). 서울:정민사
- Hemphill, S. A., Kotevski, A., Tollit, M., Smith, R., Herrenkohl, T., Toumbourou, J. W., & Catalano, R. F.(2012). Longitudinal predictors of cyber and traditional bullying perpetration in Australian secondary school students. *Journal of Adolescent Health*, **51**, 59-65. doi:10.1016.j.jadohealth.2011.11.019
- Nelson, D. A., & Crick, N. R. (2002). Parental psychological control: Implications for childhood physical and relational aggression. *Intrusive Parenting*, 161-189
- Nelson, D. A., Yang, C., Coyne, S. M., Olsen, J. A., & Hatr, C. H.(2013). Parental psychological control dimensions: Connections w ith Russian preschoolers' physical and relational aggression. *Journal of Applied Developmental Psychology*, **34(1)**, 1-8.
- Ma, T., & Bellmore, A.(2012). Peer victimization and parental psychological control in adolescence.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40**, 413-424.
- Kowalski, R. m., & Limber, S. P.(2007). Electronic bullying among middle school students. *Journal of Adolescent Health*, **41**, S22-S30.
- Kuppens, S., Laurent, L., Heyvaret, M., & Onghena, P. (2013). Associations between parental psychological control and relational aggression in

- children and adolescents: A multilevel and sequential meta-analysis. *Developmental psychology*, **49(9)**, 1697-1712.
- Olweus, D.(1994). Bullying at school: Basic facts and effects of al school based intervention program.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35**, 1171-1190.
- Patchin, J. W., & Hinduja, S.(2006). Bullies move beyond the schoolyard: A preliminary look at cyberbullying. *Youth Violence and justice*, **4(2)**, 148-169.
- Patchin, J. W., & Hinduja, S.(2010). Cyberbullying and self esteem. *Journal of school Health*, **80(12)**.614-62.
- Reed, T. J., Goldstein, S. E., Morris, A. S., & Keyes, A. W.(2008). Relational aggression in mothers and children: Links with psychological control and child adjustment. *Sex Roles*, **59(1-2)**, 39-48.
- Slonje, R., & Smith, P. K.(2008). Cyberbullying: Another main type of bullying? *Scandinavian Journal of Psychology*, **49**, 147-154.
- Willard, N. E.(2006). Cyberbullying and cyberthreat: Eugene, OR: Center for Safe and Responsible Internet Use.

-Abstract-

The Relationship between
Maternal Psychological Control on Cyberbullying
among Early Adolescents
: Mediating Effects of Relational Aggression

Paek, Moon Sook · Chang, Seok Jin
Sangmyung University

The major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mediation effects on relational aggression in the relationship between maternal psychological control and cyberbullying among early adolescents. The study's participants were 601 students selected from 5th and 6th graders at elementary schools and 1st and 2nd graders at middle schools in Seoul. The major findings were as follows: First, maternal psychological control was significantly correlated with cyberbullying victimization and offending. In addition, relational aggression was significantly correlated with cyberbullying victimization and offending. Second, maternal psychological control directly affected cyberbullying victimization and offending, and the mediation effect on relational aggression was verified between maternal psychological control and cyberbullying. The implications for counseling and suggestions for future research were discussed.

* Key words: psychological control, cyberbullying, relational aggression